

##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Factors Related to The Pregnancy of Teen-age Unwed Mothers

윤 미 현\*\*

Mi Hyun, Yoon

이 재 연\*\*\*

Jae Yeon, Lee

####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actors related to teen-age pregnancy. A total of 130 unwed mothers were interviewed regarding details of their pregnancies. Path analysis showed that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premarital sexual attitudes were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premarital sexual behaviors directly. It was also shown that the sexual attitudes of friendship groups indirectly affects premarital sexual behaviors through the path of the premarital sexual attitudes. When sexual attitudes of the fiendship group is open, premarital sexual attitudes become open, causing the increase in premarital sexual behaviors. Premarital sexual behaviors and the knowledge of contracep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 effect on the number of pregnancies.

• 10대(teenager), 미혼모(unwedmother), 임신(pregnancy)

---

\*200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해짐에 따라 오늘날 미혼여성의 임신 및 10대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80년대는 전체 미혼모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90년대에 와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한영주, 1998).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10대 미혼모가 되어 끼치는 영향은 20대 미혼모 보다 심각하다. 더구나 그 영향은 미혼모 당사자를 비롯해서 10대 미혼모가 낳은 아기, 10대 미혼모의 부모, 10대 미혼부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사회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Wazak, 1990). 또한 10대 미혼모는 나이가 많은 미혼모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10대 미혼모는 학업 중단으로 미래에 비전문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18세 미만의 미혼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임신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세 이상의 미혼모들보다 크다(Roosa, 1991). 한편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사생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10대 미혼모의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적 결함아가 되기 쉽고,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역시 자라서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Levering, 1983).

이처럼 미혼모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미혼모 자신 및 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10대 미혼모의 발생은 막아야만 한다. 10대 미혼모발생을 막거나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임신원인 및 동기를 비롯해서 미혼모가 임신하는데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만 한다. 그러나 그 동안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미혼모 연구 경향을 분석해 볼 때 미혼모 연구들은 미혼모들을 경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련 입양기관, 혹은 미혼모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강영숙, 이임정, 1976; 김근조, 1984; 양인순, 1988; 이석재, 1985; 이성하, 1989; 유유박, 1980), 다른 연구의 조사자료를 재 인용하여(강순천, 1989; 이금주, 1994; 장소영, 1976; 황옥자, 윤미현, 1996) 미혼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복지적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 경우에도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Pitterman, 1986), 부적절한 가족관계(김부자, 1986; 김영숙, 1998; Ooms, 1981) 및 친구관계(Newcomer, Gilbert & Udry, 1980), 성학대(Butler & Burton, 1990), 낮은 자아 존중감(Morgan, Chapar, & Fisher, 1995), 낮은 피임지식(Chilman, 1985; Jorgensen, 1991), 낮은 내적통제력(Mirowsky & Ross, 1983), 허용적인 혼전 성 태도(Powell & Jorgensen, 1985; Roosa & Christopher, 1990) 및 혼전 성 행동(Voydanoff & Donnelly, 1990) 등의 10대 임신 관련요인들을 단일요인으로 보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10대 미혼모의 임신 문제는 이들 중 어느 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

인적 요인들 뿐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들간의 복합적인 결과로 제시되고 있고(박홍주, 1993), 또한 이러한 여러 임신요인들을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미국에서는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한 예로서 1981년 이후 미국의 청소년 가정 생활법(Adolescent Family Life Act)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관(US Office of Adolescent Pregnancy Program: OAPP)에서는 청소년들의 임신 예방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또한 많은 연구자들(Christopher & Roosa, 1990; Donahue, 1987; Howard & Blarney, 1988; Jorgensen, 1991; Olson, Wallace & Miller, 1984; Vincent, Clearie & Schluchter, 1987)은 이 OAPP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신예방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이들은 10대 미혼모들이 임신예방프로그램에 참가한 직후,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혼전 성 태도 및 성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통제집단과 비교하기도 하고(Roosa & Christopher, 1990), 피임지식(Jorgensen, 1991), 내외통제력(Miller & Dyk, 1991)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통제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자아 존중감, 혼전 성 태도 및 성 행동, 피임지식, 내외 통제력등이 10대 미혼모의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10대 임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요인들간에는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10대 미혼모 임신관련요인 중 부모는 자녀의 성역할 사회화의 주체로서, 또한 성 행동에 대한 통제의 주체로서, 성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 자녀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성 태

도 및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Furstenberg, 1976). Brock와 Jennings(1993)의 실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과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 개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청소년일수록, 부모들과 성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할 때 더 많은 편안함을 느끼고, 성행동 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성 도덕이나 성 가치관을 반영한 성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rock & Jennings, 1993; Fisher, 1988). 특히 Huston(1990)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 지식을 알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성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대화를 저지시키는 원인이 되어, 자녀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성행위를 하게 하는 허용적인 성태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Huston, 1990; Koblinsky & Atkinson, 1982)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또래라는 새로운 세계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10대들은 또래간에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기준을 따르려고 한다. 혼전 성태도 및 성행동 발달과 친구관계에 대해 Mirand(1968)는 청소년 개인의 성 행동이란 동료집단이 갖는 기대의 함수라고 하였고, Shah와 Zelnik(1981)는 대학 진학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는 부모의 의견에 유사하게 따르지만 혼전 성 행동에 대해서는 친구의 견해와 유사하게 따른다고 보았다.

한편 성적으로 학대받는 소녀의 자아정체감은 자신은 다른 사람의 성욕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응해 주던 사회적 경험에 의해,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대상으로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혼전 성태도를 형성하게 된다(DeYoung, 1984; Fromuth, 1986; Herman, 1981; Meiselman, 1978). 또한 성적으로 학대받은 소녀

는 지속적인 착취당함의 결과로 성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은 왜 성적으로 학대받은 소녀들이 매춘하는 쪽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과 '혼교'라고 부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게 해준다(Butler & Burton, 1990). 특히 이들은 불규칙한 피임법 사용이나 혹은 피임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임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Zelinick & Kanter, 1981).

한편 1950년 이후 많은 연구가들은 특히 낮은 자아개념을 청소년의 임신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기술하고 있다(Abernathy, 1975; Malmquist, Kiresuk & Spano, 1966; Robbins, 1985). 또한 여러 연구가들(예; Harter, 1986; Roosa & Christopher, 1990; Jorgensen, 1991; Miller & Dyk, 1991)은 자아 존중감은 10대 미혼모들의 혼전 성태도나 혼전 성행동을 잠재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중재요소로 취급하고 10대 미혼모 임신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때 자아 존중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다. Blinn(1987)도 역시 낮은 자아개념은 청소년들 사이에 낮은 피임법 사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면서,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의 피임법 사용률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청소년의 혼전 성행동 및 임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Roosa와 Christopher(1990)는 자아 존중감과 성 태도 및 성에 대한 신념은 어린 청소년들이 성장한 이후의 성 행동을 잠재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중재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 태도나 성에 대한 신념을 그대로 성 행동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들의 실제 성 행동은 보다 제한적이 되거나 허용적이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데이트와 사랑,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다 허용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대한 각본을 허용적인 쪽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Eshelman, 1988). 성 태도란 성에 대해 개인이 갖고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성적 행동은 성에 대한 육체적 활동(최용희, 1997)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혼전 성 태도는 혼전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 태도와 성 행동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1968년 이후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 의견은 줄어들고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는 서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 짓고 있다(김영옥, 1982).

특히 197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들은 내적 통제력의 부족은 10대 미혼모의 임신을 유발시키는 혼전 성행동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연결시키고 있다(Duncan & Morgan, 1980; Macdonald, 1976; Mclaughlin & Micklin, 1980; Mlirowsky & Ross, 1983). 또한 Bolton(1980)도 낮은 내적통제력에 기인한 운명론을 10대 미혼모들의 토론에 공통 주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10대 미혼모 연구에서 Furstenburg(1976)는 청소년들의 낮은 내적 통제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외적인 압력에 쉽게 따르도록 이끌기 때문에, 특히 낮은 내적 통제감을 가진 청소년에게 혼전 성행동을 하게하는 외적인 압력은 이들이 임신 및 반복임신을 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Morgan(1995)은 임신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않은 청소년 모두가 높은 외적인 통제

점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고, Saltz와 Ager(1997)는 오히려 10대 미혼모들이 임신하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높은 내적 통제력을 갖고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피임지식과 혼전 성행동과의 관계는 미국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중 Roosa와 Christopher(1990)는 오직 금욕만을 강조하는 임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피임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금욕만을 강조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6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혼전 성 태도 및 성행동에 의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의외의 놀랄만한 부정적인 역효과가 나타났는데, 처치집단에 속한 남아아동들은 중재기간동안 오히려 혼전 성 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중 성 경험이 전혀 없었던 청소년들은 피임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금욕만을 강조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간 중에 오히려 성 관계를 하는 역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청소년 임신예방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임신률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같은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근본적으로 금욕을 강조하지만 피임교육을 임신 예방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거나(Howard & McCabe, 1990), 학교를 중심으로 피임지식과 피임기구 사용법은 물론이고 인간생식에 대한 지식과 성병에 대한 경고, 건강상담 및 종합적인 가족계획 서비스 등을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켰을 때, 청소년의 임신 위험률이 감소 됐다고 보고하고 있다(Dryfoos, 1985; Edwards, Steinman, Arnold &

Hakanson, 1980; Kirby, Wasak, & Ziegler, 1991).

한편 Morgan, Chapar와 Fisher(1995)가 10대 중에 임신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룹과 임신 경험이 없는 그룹의 첫 성관계 시기를 비교 연구 했을 때, 임신했던 경험이 있는 그룹은 평균 14.8세, 임신한 경험이 없는 그룹은 평균 15.6세에 첫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첫 성관계를 일찍 시작할수록 혼전 성행동은 증가하고 그만큼 10대의 반복 임신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ott(1986)는 10대 미혼모들의 반복되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더 많은 피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성교육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Howard와 McCabe(1990)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에 피임지식, 피임법 사용을 포함시키고 인간생식에 대한 지식과 성병에 대한 경고, 건강상담, 가족계획 등 여러 가지 다른 건강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들의 혼전 성행동이 감소됐다고 보고하면서 10대들에게 피임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혼전 성행동을 감소시켜 이들의 혼전 임신 및 반복 임신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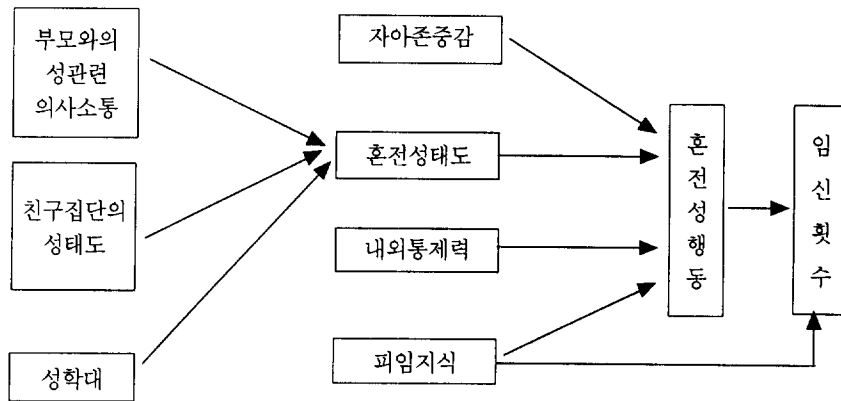
이제까지 밝힌 이런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 하려는 연구는 많았지만, 본 연구처럼 10대 미혼모의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던 선행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성격의 접근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10대 임신 관련요인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대 미

혼모들의 임신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이론적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친구집단의 성

의 집, 마리아의 집)에 수용되어있는 미혼모 170명과 아동복지시설 일람표(1999)에 나타나 있는 아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4대 입양기관(한국사회봉사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에 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 미혼모 72명으로 총 242명이다. 242명중 10대는 130



<그림 1>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

태도, 성 학대가 10대 미혼모의 혼전 성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아 존중감, 혼전 성 태도, 내외통제력, 피임지식은 10대 미혼모의 혼전 성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혼전 성행동과 피임지식은 임신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시설(1999)에 수록된 8개 미혼모시설 중 질문지 응답을 수락한 6개 미혼모 시설(구세군여자관, 마리아모성원, 대구혜림원, 인애복지원, 에스더

명(53.7%), 20대이상은 112명(46.3%) 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 1,0명만을 최종분석에 포함시켰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 척도, 자아 존중감 척도, 혼전 성태도 척도, 내외적 통제력 척도, 성학대 경험 척도, 혼전 성행동척도에 대해서는 문항의 적합도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박사 및 전공교수 10인 이상의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아서 사용하였다.

- 1)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측정도구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측정도구는 1984

년 여성개발원의 강정숙 등이 직접제작 한 '부모의 성 태도 측정도구' 11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성관련 대화 및 부모의 성적 개방성을 묻는 4문항만을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척도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성 태도 척도는 여성개발원이 개발하여 사용했을 당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부정 문항은 모두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2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이 많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4$ 로 나타났다.

## 2) 자아 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 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Self-Esteem Scale'을 Butler와 Burton(1990)이 수정하여 10대 미혼모 연구에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변안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Butler와 Buton(1990)이 사용한 자아 존중감 척도는 미국의 10대 미혼모에게 사용했을 당시, 긍정적 자기 존중감 4문항과 부정적 자기 존중감 4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alpha = .81$ ,  $\alpha = .84$  였으며,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평형성을 위해 Butler와 Buton(1990)이 사용할 당시 4점 척도였던 것을 5점 척도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아 존중감 척도는 최대 8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8$ 로 나타났다.

## 3) 친구집단의 성 태도 척도

친구집단의 성 태도 척도는 여성개발원(1984)

이 미혼모의 친구집단의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친구집단의 성 태도 척도는 친구들의 성적 개방성 문항 5개와 친구와 성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문항 1개를 합쳐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고,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alpha = .8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 모두를 합하여 친구집단의 성태도 점수로 보며,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의 성적태도가 개방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친구들의 성적 태도가 보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로 나타났다.

## 4) 혼전 성 태도 척도

혼전 성 태도 척도는 김부자(1986)가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자가 다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부자(1986)의 혼전 성 태도 척도는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는  $\alpha = .89$ 였으며, 원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여러 측정도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혼전 성 태도 점수 범위는 9점에서 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전 성 태도가 개방적이고 허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점수가 낮을수록 혼전 성 태도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 5) 피임지식 척도

피임지식 척도는 여성개발원(1984)이 개발하고 한영주(1998)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영주(1998)는 여성개발원이 개발했을 당시 4점 Likert 척도였던 피임지식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고쳐서 사용했으며, 여성개발원이 개발했을 당시 신뢰도는  $\alpha = .93$  이었다. 피임지식 척도는 제시된 8가지 피임과 피임방법에 대해 미혼모가 알고 있거나 사용해본 경험에 따라 매우 잘 안다(5점)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1점)까지 5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 지식에만 한정시켜 조사하였으며, 피임지식 척도의 점수 범위는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로 나타났다.

#### 6) 내외적 통제력 척도

내외적 통제력 척도는 Rotter(1966)의 내외통제 성향척도(Inter- External Control Scale)를 공정자, 김철수, 차재호(1973)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일부만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원래 이 척도의 10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91이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한 Rotter(1966)의 내외 통제력 문항 7개는 구성상 내적 통제력 문항 7개와 외적 통제력 문항 7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모두 14개 문항이 되며 다른 척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력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2$ , 외적 통제력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59$ 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최종 임신관련요인들에 관한 모형에는 통계적으로 10대와 20대간에 의의 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온 내적 통제력만을 포함시켰다.

#### 7) 성 학대 경험 척도

성 학대 측정 도구는 장화정(1998)이 개발한 전문가용 아동 성 학대 행위척도를 10대 미혼모

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개발 당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alpha = .99$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화정의 아동 학대행위척도 중 성 학대 척도 14문항만을 10대 미혼모의 성 학대 경험을 묻는 척도로 적합하도록 문장을 고쳐 사용했고, 학대행위의 발생 빈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문항 적합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박사 및 전공교수 10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성 학대 점수의 평정은 최하 14점에서 최고 70점까지로 평정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성폭력 및 성 학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 로 나타났다.

#### 8) 혼전 성 행동 척도

Delamater와 MacCorquodale's(1979)의 결혼 전 성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혼전 성 행동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처음 이들이 혼전 성행동 척도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신뢰도는  $\alpha =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항목 중 주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대표적인 성행동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5항목을 선택하여, 그 경험의 빈도를 묻고 있다. 혼전 성행동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성 행동 점수는 최하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혼전 성 행동 경험이 많고 허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로 나타났다.

#### 9) 임신횟수

임신횟수는 10대 미혼모가 현재임신이외에 이전에 임신중절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연속적인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즉 이전에 임신한 적이 없다(1점), 한번있다(2점), 두번있다(3점), 3번혹은 그이상있다(4점)으로 평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이므로 그들의 연령에서 내용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했다. 예비조사 대상 학생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중고교생들로서 연령은 13세에서 16세 범위에 속한다. 본 조사는 1999년 5월에 8개소 미혼모시설과 5개소 아동전문상담기관에 1차적으로 우편을 통해 질문지 응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어 7월에는 공문을 통해, 7월말 경에는 전화를 통한 협조요청을 한 결과, 질문지 협조를 허락한 미혼모시설 6개소와 아동상담기관 4개소에 우편과 직접방문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직접방문을 통해 미혼모에 관한 면접결과를 조사하고, 직접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본 질문지의 배포 및 수거에 걸린 시간은 8월초에서 12월 중순까지 약 4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질문지 응답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 - 4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 자료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질문지수는 총 242부 중 20대 미혼모 112명을 제외한 10대 미혼모만을 위한 질문지 130부였다.

### 4. 자료분석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변인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간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어떤 변인이 10대 미혼모 임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세운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간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학대를 제외한 본 연구의 이론적모형에서 사용된 설명변인들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의 크기는  $r = -.34$ 에서 .47까지로 나타났다. 즉 성학대를 제외한 친구집단의 성태도,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 혼전 성태도, 자아 존중감, 피임지식, 내적 통제력, 혼전 성행동, 임신횟수는 직. 간접적으로 10대 임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는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들간의 상호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 임신횟수	1.00								
(2) 혼전성행동	.23*	1.00							
(3) 내적통제력	-.13	-.16	1.00						
(4) 피임지식	.23**	.33***	-.04	1.00					
(5) 자아존중감	-.11	-.023	.29***	.01	1.00				
(6) 혼전성태도	.16	.47***	-.34**	.23**	.02	1.00			
(7) 부모의성관련의사소통	-.02	-.08	.07	.05	.33***	-.12	1.00		
(8) 친구집단의 성태도	.21*	.36***	-.14	.32***	-.18*	.41***	.07	1.00	
(9) 성학대	.09	.08	-.07	.08	-.10	-.05	.15	.07	1.00
평균	1.32	12.91	45.00	19.48	25.28	27.57	10.78	20.63	17.73
표준편차	.66	3.37	3.97	6.52	4.87	6.03	3.61	5.28	5.36

\*p<.05 \*\*p<.01 \*\*\*p<.001

2.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들간의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경로모형에 포함된 모든 설명변인들간의 기여정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 회귀분석은 한 도표 내에서 기여도가 높은 변인과 그렇지 못한 변인을 제시해 주고, 변인들간의 설명력을 서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경로모형에 포함된 회귀분석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10대 미혼모 임신 관련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 변 인		
	혼전 성 태도	혼전 성행동	임신 횟수
부모와의성관련의사소통	-.14		
친구집단의성태도	.43***		
성 학 대	-.05		
자아 존중감		-.03	
혼전 성태도		.42***	
내적 통제력		.002	
피임지식		.24**	.17
혼전 성행동			.17
F 값	10.09***	11.82***	5.28**
R <sup>2</sup>	.194	.275	.077

\*\*p<.01 \*\*\*p<.001

<표2>에 의하면, 친구집단의 성태도( $\beta = .43$   $p < .001$ )는 10대 미혼모의 혼전 성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나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성학대는 혼전 성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집단의 개방적인 성 태도는 10대 미혼모의 개방적인 혼전 성 태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변인의 혼전 성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19.4% 였다.

혼전 성 태도( $\beta = .42$   $p < .001$ ), 피임지식( $\beta = .24$   $p < .01$ )은 10대 미혼모의 혼전 성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 존중감, 내적 통제력은 혼전 성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전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피임지식이 많을수록 10대 미혼모들은 혼전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가지 변인의 혼전 성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7.5%로 나타났다.

혼전 성행동, 피임지식은 10대 미혼모 임신횟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가지 변인들은 10대 미혼모의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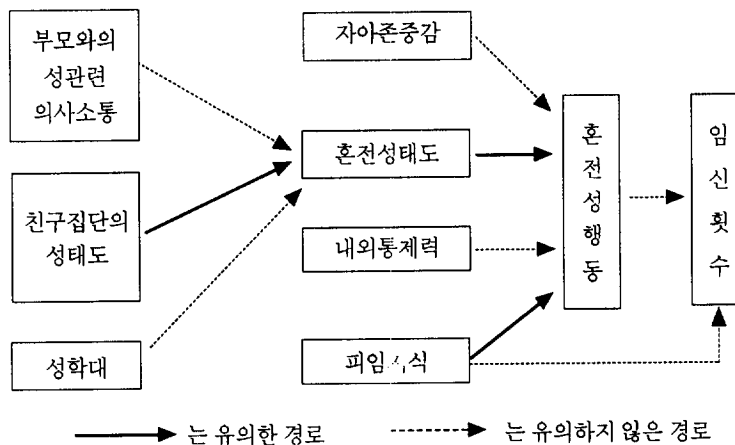
복적인 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가지 변인의 임신횟수에 대한 설명력은 7.7%였다.

### 3. 10대 미혼모의 임신 관련요인들간의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적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을 기초로,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들간의 경로분석을 실시 한 결과와 영향력 분석결과는 <그림 2> <표3>과 같다.

<그림 2>와 <표3>을 가지고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들간의 경로모형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혼전 성 행동에 직접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피임지식과 혼전 성 태도다. 이 두 변인 중에서 혼전 성 태도가 피임지식 보다 더 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10대 미혼모의 개방적인 혼전 성 태도가 이들의 혼전 성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그림 2>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변인들간의 경로분석결과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10대 미혼모의 피임 지식의 증가가 이들의 혼전 성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집단의 성 태도는 혼전 성 행동에 직접적인 인과효과는 미치지 않았으나 혼전 성 태도의 경로를 거쳐서 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집단의 성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10대 미혼모의 혼전 성태도는 더욱 개방적이 되어 이들의 혼전 성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전 성 행동과 피임지식은 10대 미혼모의 임신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아 존중감은 혼전 성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 통제력 역시 혼전 성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아 존중감과 내적 통제력의 높고 낮음은 10대 미혼모의 혼전 성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포함된 10대 미혼모의 임신 관련요인들간의 상호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학대를 제외한 10대 미혼모 임신 관련요인들간에는 서로 의의 있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가 10대 미혼모의 임신 관련요인들과 서로 의의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민정(1997), 문애희(1997), Briere(1992), Butler와 Burton(1990)등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김민정(1997)의 경우 성폭행과 자아 존중감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애희(1997)의 경우는 성폭행과 혼전 성태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 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Briere(1992), Butler와 Burton(1990)등의 연구에서는 성학대와 자아 존

<표 3> 임신관련 요인들간의 영향력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혼전성태도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				F= 10.09*** R <sup>2</sup> =.19
	친구집단성태도	.43		.43	
	성학대				
혼전성행동	친구집단성태도		.18	.18	F=11.82*** R <sup>2</sup> =.28
	자아 존중감				
	혼전 성태도	.42		.42	
	내적 통제력				
임신횟수	피임지식	.24		.24	F=5.28** R <sup>2</sup> =.08
	혼전성행동				

중감, 혼전 성태도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성폭행과 성학대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성학대 변인이 10대 임신과 실제로 상관이 없다가 보다는 우리나라 10대 미혼모의 경우 아직까지는 성폭행이나 성학대에 의한 임신이 표면화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들은 이미 임신으로 인해 높은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학대는 임신관련요인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의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중 혼전 성태도가 혼전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부자(1986), 김영옥(1984), Dryfoos(1985), Kirby, Wasak과 Ziegler(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안순덕(1984), Roosa와 Christopher(199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안순덕(1984)은 20대 미혼모를 포함시킨 결과이며 Roosa와 Christopher(1990)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표본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혼전 성태도나 성에 대한 신념은 반드시 성행동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혼전 성행동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혼전 성행동을 경험한 후 오히려 혼전 성태도가 실제에 맞게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기 때문(안순덕, 1984)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친구집단의 성태도가 혼전 성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거쳐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부자(1986), 여성개발원(1984), Roosa와 Christopher(1990), Zelnik(1981)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기의 혼전 성태도는 친구집단의 영향을 받기 쉽고(Rodgers & Rowe, 1990) 특히 청소년기의 혼전 성태도와 성행동은 밀접하게 상호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성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허용적인 쪽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Eshelman, 1988)고 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피임지식의 증가가 혼전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부자(1986), 여성개발원(1984)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지만 그동안 피임지식의 결핍이 혼전 성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아왔던 김영숙(1998), Howard와 McCabe(1990), Zabin, Hirsch, Smith, Street와 Hardy(1986)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표본집단이나 측정도구의 차이 혹은 인종적, 문화적인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집단을 통한 성적호기심만을 자극하는 표면적이고도 비체계적인 피임지식의 습득은 오히려 혼전 성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로 주목해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경로분석결과를 종합해 볼때, 아직 혼전 성태도가 형성되기 이전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교사가 아동이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혼전 성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10대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나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 피임지식은 물론 인간의 생식작용 및 인간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교육, 성병에 대한 경고는 물론이고 10대 미혼모에 대한 건강상담, 종합적인 가족계획상담, 육아지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때(Miller & Dyk, 1991), 이들의 혼전 성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통제력은 혼전 성행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Duncan과 Morgan(1980), Furstenburg(197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국의 10대 미혼모들은 미국의 10대 미혼모들에 비해 내적 통제력의 높고 낮음이 혼전 성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화적 인종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10대 미혼모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성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10대 미혼모들의 성적인 개방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적 통제력과 함께 자아 존중감도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oosa와 Christopher(1990)의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지만 Miller와 Dyk(1991)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Miller와 Dyk(1991)의 경우에는 10대 미혼모들에게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피임지식, 육아 지식, 인간의 생식작용 등에 관한 교육과 태아기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실시한 후에 자아 존중감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로 추측되며, 또한 본 연구의 경우에도 자아 존중감이 임신이후에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내적 통제력과 자아 존중감이 혼전 성행동에 의미 없게 나타난 결과는 그 동안 미혼모 시설에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아 존중감과 내적 통제력을 높여 재임신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 온 것에 대해(이미혜, 1997; Mott, 1986) 앞으로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들의 성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므로, 피임지식을 알려주는 등의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혼전 성행동, 피임지식은 10대 미혼모의 임신횟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혼전 성행동은 안순덕(1984), Morgan, Chapar와 Fisher(1995)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며, 피임지식은 Blinn(1987), Mott(1986)와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안순덕(1984)은 20대 미혼모를 연구에 포함 시킨데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10대 미혼모들은 혼전 성행동의 결과가 곧 임신의 횟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며, 단순상관관계 결과 혼전 성행동과 피임지식은 임신횟수에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간에 상관이 없다기보다 10대 미혼모들은 아직까지 반복 임신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다 회귀분석의 결과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Blinn(1987), Mott(1986)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피임인지도만을 피임지식으로 측정 한데 비해 Blinn(1987), Mott(1986)는 피임지식에 피임법에 대한 정보 및 가족계획, 인간의 생식, 생명의 중요성 등을 포함 시킨데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미혼모 특성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교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적인 10대와 혼전 성태도, 혼전 성행동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처럼 임신 관련요인들간의 인과모형을 세워놓고 검증하려고 한 선행연구

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결과를 충분히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미 임신과 출산을 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혼전 성 태도, 자아 존중감, 혼전 성 행동등 임신 이전의 성 태도, 자아 존중감, 성 행동을 묻는 일부 임신관련요인들의 경우 조사시점의 성 태도, 자아 존중감, 성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소재 한 미혼모기관에 수용된 미혼모와 우리나라 4대 전문아동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외적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20대를 포함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10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임신관련요인들에 대한 인과경로를 분석했기 때문에 10대 미혼모들의 임신에 이르는 인과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추후연구와 복지행정 및 정책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임신관련요인들에 대한 경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게 나온 성폭행이나 성학대 변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문항의 제거 및 첨가 등을 통해 경로를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을 질문지조사법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대일 개별 상담, 관찰등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10대 미혼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초등학교시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집단적인 교육의 형태로 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혼전 성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청소년시기에는 더 이상 금욕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에서 벗어나 피임지식, 인간의 생식에 대한 지식, 생명의 존엄성, 성병에 대한 경고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미 임신, 출산한 10대 미혼모에 대해서는 반복임신을 막고, 출산이후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교육,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들간의 인과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시도에 불과하다. 오늘날 성개방 풍조에 따른 10대의 혼전 성행동과 임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식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10대 미혼모는 성장발달 및 학업을 계속해야할 시기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천(1989). 한국 부녀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영숙, 이입정(1976). 미혼모 발생원인과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 10집.
- 김근조(1984).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1997). 여대생의 아동기 성학대 피해 경험과 심리 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부자(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 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1998). 미혼모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애희(1997).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1999). 아동보호 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 시설현황.
- 안순덕 외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양인순(1988).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유박(1980).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금주(1994).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혜(1997).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내적 통제성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석재(1985). 미혼모의 발생 원인과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하(1989). 미혼모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소영(1976).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업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옥자, 윤미현(1996). 한국미혼모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동국논총, 제35집 219-247.
- Abernathy, V.(1975). Illegitimate conception among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4, 662- 665.
- Blinn. L. M.(1987). Phototherapeutic intervention to improve self-concept and prevent repeat pregnancies among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36, 252-257.
- Briere, J. N. (1992), *Child abuse trauma: theory and treatment of lasting effects*, Sage Publication.
- Butler, J. R., Burton, L. M(1990), Rethinking teenage child-bearing; its sexual abuse a missing link, *Family Relations*. 39, 73-80.
- Chilman, C. S(1985), Feminist issues in teenage parenting, *Child Welfare*, 54, 225-234.
- De Young, M. (1984), Promises, threats and lies: keeping incest secret. *Journal of Humanics*, 8, 203- 219.
- DryFoos, J. (1985), School- based health clinics : A new approach to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Family Planning Perspective*. 17, 70-75.
- Duncan, G. J. & Morgan, J. N. (1980), *The incidence and some consequences of major life event*. In G. J. Duncan & J. N. Morgan(Eds.), *Five thousand american family- patterns of economic progress*. (Vol 8) (pp 183- 240).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Eshelman, J. R. (1988), *The family: an introduction*.



- 5th edition: Allyn and Bacon, Inc.
- Fromuth, M. E. (1986), The relationship of childhood sexual abuse with later psychological and sexual adjustment in a sample of college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10, 5- 15.
- Furstenberg, F. F. (1976), *Unplanned parenthood: the social consequences of teenage childbearing*. NEW YORK: The Press, p38.
- Herman, J. L. (1981), *Father- daughter incest*.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ward, M., & McCabe, J. B. (1990), Helping teenagers postpone sexual involvement.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2, 21- 26.
- Jorgensen, S. R. (1991), Project taking charge: an evaluation of an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Family Relations*, 40, 373- 380.
- Kirby, D., Wasak, C., & Ziegler, J. (1991), Six school- based clinics: thei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impact on sexual behavior.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3, 6- 16.
- Levering, C. S(1983),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an introduction, *Child Hood Education*, January/February, 182-185.
- Malmquist, C. P., Kiresuk, T. J., & Spano, R.(196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repeated illegitimacies descriptive aspec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6, 476- 484.
- Mirowsky, J., & Ross, C. E. (1983),Paranoia and thestructure of powerlessness. *American Sociology Review*, 48, 228- 239.
- Miller, B. C., & Dyk, P. H. (1991), Community of caring effects on adolescent mothers: a program evaluation case study. *Family Relations*, 40, 386- 395.
- Mirowsky, J., & Ross, C. E. (1983),Paranoia and thestructure of powerlessness. *American Sociology Review*, 48, 228- 239.
- Morgan, C., Chapar, G. N; Fisher, M(1995), Psychological variables associated with teenage pregnancy, *Adolescence*. 30, 277-289.
- Morgan, D. L.(1995),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Mott, F. L. (1986), The pace of repeated childbearing among young american mothers. *Family Planning Perspective*. 18, 5-12.
- Newcomer, S. F., Bilbert, M. Udry, J. R. (1980), Perceived and actual same sex peer behavior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oms, T. (1981), *Teenage pregnancy in a family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p 100.
- Roosa, M. W. (1991), Evaluation of an abstinence- only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A Replication Family Relations*, 39, 363- 367.
- Roosa, M. W., & Christopher, F. S.(1990), A response to thiel and mcbride scientific criticisme or obscuratinism? *Family Relations*, 41, 468- 469.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609).
- Saltz, E., & Ager, J. (1997), *Predicting teenage pregnancy*. Presented at Maternal and Child Health Roundtable, Rockville, Maryland.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0), *Adolescent sexuality and pregnancy*. Newbury Park, CA: Sage.
- Zabin, L. S., Hirsch, M. B., Smith, E. A., Streett, R., & Hardy, J. (1986), Evaluation of a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teenager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8, 119- 126.
- Zelnik, M. ; Kantner, J. ; and Ford, K.(1981), *Adolescent pathways topregnanc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